

최영장군 전승을 통해 본 장군과 향유집단의 동일시 현상 연구

박다원*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최영장군 전승의 양상과 특징
- III. 최영장군과 향유집단과의 관계
- IV. 동일시 현상과 그 특징
- V. 결론

【 】

본 연구는 '향유집단이 왜 정치적 상황에 의해 희생된 최영장군을 전승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최영장군은 고려말 대표적인 명장으로 손꼽힌다. 그는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하여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인물이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에서 부하인 이성계에 의해 희생당한다. 그의 죽음은 고려왕조의 멸망과 동궊에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한(恨)'의 표상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피지배계층이었던 고려 민들의 '한(恨)' 또한 조선의 건국과 함께 가중되었다고 보인다. 조선의 역성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계층에서 지배계층으로의 권력 이동이었다. 피지배계층이었던 민들의 삶은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온전히 보존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영장군이라는 뛰어난 명장이 사라짐으로써 더욱 궁핍해지고 어려워졌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선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잦은 왜구의 침입은 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곁에서 왜구를 격퇴해준 최영장군을 더욱 그리워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하면서 최영장군 전승을 향유한다. 즉, 최영장군 전승은 향유집단인 민들이 최영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배집단을 원망하여 그들로 인해 쌓인 향유집단의 ‘한(恨)’을 최영장군의 ‘한(恨)’과 동일시함으로써 지배계층에게 자기 목소리 내기를 감행한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 : 최영장군, 한(恨), 원망,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동일시, 조선, 이성계, 고려, 왜구, 향유집단, 전승

I. 문제제기

본 연구는 ‘향유집단이 왜 정치적 상황에 의해 희생된 최영장군을 전승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최영장군은 고려말 대표적 명장으로 손꼽힌다. 그는 다양한 전투에서 승리하여 뛰어난 업적을 보유한 인물이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가 주도한 위화도 회군에서 부하인 이성계에 의해 희생당한다. 그의 죽음은 고려왕조의 멸망과 동궐에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한(恨)’의 표상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한’이라는 정서는 민족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다고 여겨질 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어 왔다. 정신분석학, 문학, 사회학, 민속학에서 ‘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방증해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최영장군 전승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민족적 정서를 대변하는 바로 이 ‘한(恨)’의 정서와 맞물려 가능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찍이 최영 장군을 ‘한(恨)’의 정서와 관련하여 논의한 연구들이 있었다.¹⁾ 이들의 연구는 최영 장군의 죽음과 최영 장군 숭배

1) 崔吉城, 『恨의 象徵의 意味-崔瑩將軍의 죽음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4, 비교민속학회, 1981, pp.37-67.; 홍태한, 『설화와 민간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

현상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그 의미를 추출했다는 점에서 본받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 장군을 숭배하는 민중들의 의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조망이 미흡하였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²⁾의 미흡한 논의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한’이라는 정서와 최영장군과 향유집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향유집단이 단순히 ‘한’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최영장군을 전승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최영장군에게 존재했기에 전승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영장군은 향유집단에게 공헌을 하거나 공헌을 했다고 믿어지는 인물이다.³⁾ 그런 인물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향유집단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 향유집단은 그들이 고마워하던 존재인 장군을 억울하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994, pp.31-52.;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pp.97-122. 등의 연구가 있다.

- 2) 대표적인 세 사람의 논의 이외의 논의도 있다. 백은영(『문헌설화와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崔瑩)장군』, 『한국중세사연구』 23, 한국중세사학회, 2007, pp.91-125.)은 역사기록에서 나타나는 최영장군의 면모와 설화에서 나타나는 최영장군의 면모를 비교하여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 모색하였다. 레티옹옥겸(『崔瑩將軍 신앙 연구』, 仁荷大學校大學院 韓國學科 석사학위논문, 2010.)은 최영장군을 신앙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3) ‘기억은 모든 것을 변형시켜 분간할 수 있는 사건의 형태로 재현한다. 기억 속의 과거는 일종의 추상화된 과거다. 다시 말하면 의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감각하고 지각한 체험의식, 즉 정서와는 다른 정서로 보존되어 있는 과거다.’(金坡五, 『詩論』, 三知院, 2015, p.378.)는 설화에서 최영 장군의 행적이 역사와 차이 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논의라고 하겠다.
- 4) 한 영웅이 뒷날 영웅신이 되기 위해서는 곧 그의 업적이 민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며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한 인간의 명성은

게 죽게 만든 존재들에 대해 분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유집단의 분노 대상은 지배계층이라고 하겠다.

향유집단은 최영장군 전승을 통해 장군의 죽음으로 생기게 된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상처가 아니라 역사적 소산으로 남겨진 민족의 상흔이다.”⁵⁾라는 논의는 향유집단이 최영장군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한’을 그들의 것으로 동일시⁶⁾하였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향유집단은 최영장군의 ‘한’을 자신들의 ‘한’으로 동일시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분노를 전승을 통해 표출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영장군과 향유집단의 동일시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영장군 전승을 향유하고 있는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최영장군은 개성을 중심으로 신격화 되어 섬겨졌던 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분포되고 있다.⁷⁾ 또한 남해 지역에서는 사당에 모셔져 섬겨진다. 최영이 왜적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세운 인물인 만큼 남해 지역에서 최영 장군을 모시게 된 배경에는 향유집단의 안녕을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

무릇 민중의 이해와 애착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5, p.105.)

5) 김영필, 『한국인의 한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哲學研究』 92, 大韓哲學會, 2004, p.121.

6) 타자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金坡五, 위의 책, 2015, p.41.)

7) 개성이 덕물산이 영산으로 여겨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최영장군이 묻힌 적분(赤墳)과 장군의 혼령이 서려 있는 ‘최영장군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무덤은 풀이 나지 않는다 하여 적분이라 불리고 있다. 특히 최영장군사에 봉안되어 있는 최영장군신은 무당에게는 영험력을 안겨주는 신으로 그리고 민중에게는 삶의 무사태평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봉안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게 된다.(최영장군당굿보존회, 『최영장군당굿 연구』, 민속원, 2008, p.20.)

된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로 최영 장군이 개성에서 섬겨졌다는 사실은 고려와 최영 장군의 관계 그리고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승을 끊임없는 생산이라고 본다면 최영장군 전승의 동인은 결국 ‘한’의 동일시를 통한 끊임없는 자기 목소리 내기일 것이다. 연구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최영장군 전승을 통해 피지배계층이 어떠한 양상으로 ‘한’을 체인하고 승화해나가는 지에 대한 다각적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⁸⁾ 우리 민족의 역사는 내우외환으로 상처받고 얼룩져 있다. 이런 상처와 얼룩이 ‘한’이라는 정서를 배태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인의 ‘한’은 다층적 복합성을 지녀 ‘원(怨) → 탄(嘆) → 정(情) → 원(願)’의 단계를 거친다.⁹⁾ 최영장군 전승은 ‘한’의 정서가 집약되어 표출된 자료라고 하겠다.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종·횡의 역사를 아울러 향유집단이 왜 최영장군과 같은 원혼을 가진 장군들의 전승을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II. 최영장군 전승의 양상과 특징

최영장군 전승은 크게 역사적 기록과 민간전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사적 기록과 민간전승에서 본 최영장군의 면모는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역사적 기록에서의 최영장군은 충직하나 우둔한 인물로 평가된

8) 물론 지배계층이 가진 ‘한(恨)’의 표출 양상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지배권을 가짐으로써 피지배층보다는 ‘한(恨)’의 표출이 자유로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논의에서는 피지배계층의 ‘한(恨)’의 표출 양상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9) 김영필, 위의 논문, 2004, pp.118-123.

다. 반면 민간전승에서의 최영장군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두 전승에서 이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니 두 전승을 따로 살펴 그 이유를 밝히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영장군 전승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역사적 기록과 민간전승을 통해 차이의 연원이 무엇인지? 차이의 특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밝히어 보고자 한다.

1. 역사적 기록

최영장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고려사』 열전과 『조선왕조실록』 태조초년에 많이 나타난다.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이 조선시대에 쓰인 역사서임을 감안한다면 조선시대 사관(史官)들이 고려시대의 충신이었던 최영장군의 본 모습을 역사서에 그대로 담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¹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인다. 또한 사관(史官)들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최영장군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피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관(史官)들은 사관(史觀)에 입각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최영장군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또한 그들의 의무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관(史官)들은 서로 어긋나는 두 가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선택과 배제라는 갈림길에서 곤란을 겪었을 것이다. 그 곤란의 흔적은 역사적 기록에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기술의 이중적 시각이 발생되었다고 여겨진다. 객관성을 유지하고자하는 태도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의 확보하고자하는 태도는 사관(史官)들의 이중적 시각을 배태시켰다고 생각된다. 기존

10) 최길성, 위의 논문, 1989, p.41.

의 연구들에서도 이중적 시각의 원인을 객관성과 정당성 확보에 두었지만 본고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중적 시각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사』 열전과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최영장군의 면모를 살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인물이 태조 이성계이다. 조선은 『고려사』 열전, 『조선왕조실록』에서 최영장군과 태조 이성계를 끊임없이 비교 선상에 둔다. 이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립에 가장 핵심적 사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장군이 고려에 대한 충절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역사서에서의 두 인물의 비교는 가장 확실하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가시화하는 데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먼저 『고려사』 열전에서 보이는 최영장군과 이성계의 기록을 살펴본다.

우왕4년(1378), 왜구의 배들이 착량(窄梁)에 대규모로 집결해 승천부(昇天府)로 침입하고는 장차 개경을 침구하겠노라고 떠들어댔다.···(중략)···최영은 모든 군사들을 총지휘하여 해풍군(海豐君)에 진을 치고 찬성사(贊成事) 양백연(梁伯淵)을 부관으로 삼았다. 적들이 상황을 탐지한 후, 최영의 군대만 격파하면 경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기고 이군이 진 친 곳을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지나쳐 곧장 중군이 있는 해풍군으로 진격했다. 최영은, “나라의 존망이 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려있다”라고 다짐하고는 양백연과 함께 나아가서 적들을 공격하였다. 적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최영이 퇴각하자, 우리 태조(太祖)가 정예 기병을 거느리고 곧바로 나아가 양백연과 협공해 적들 대파했다. 적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최영이 부하들을 지휘해 측면에서 공격하니, 적들은 거의 다 죽고 잔당들만이 밤에 도망하였다. 밤새 도성에는 최영이 패주했다는 소문이 퍼져 인심이 더욱 흥흥해졌고 사람들은 갈 곳을 알지 못하였다. 우왕이 피난을 떠나려 하자, 백관(百官)들은 행장을 꾸린 채 궁문에 겹겹이 모여 왕을 기다렸다. 원수(元帥)들이 보낸 전령들이 전승을 보고하자 비로소 개경에는 삼엄한 경계가 풀렸으며 백관들이 모두 하례했다. 조정에서는 최영의 전공을 기려 안사공신(安社功臣)의 칭호를 내려주었다.¹¹⁾(밑줄은 필자)

위의 기록은 사관(史官)들의 이중적 시각이 엇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적들이 최영의 군대만 격파하면 경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여겼다’라는 대목과 ‘나라의 존망이 한 번의 싸움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최영의 용맹함과 그의 장수로서의 명성이 왜구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내 용맹하고 명성이 자자한 최영은 집중 공격을 받아 퇴각하기에 이른다. 이때 ‘태조가 나타나 양백연과 협공해 적들을 대파하자 이를 본 최영이 부하들을 지휘해 공격해 적들을 격파했다’고 하고 있다. 앞선 언급에서는 최영의 용맹한 모습을 부각하고 있으나 태조가 등장하자 최영은 태조가 격파한 적들을 보고서야 공격을 감행하는 소극적 인물로 변해버린다.

다시 ‘그의 패주 소문으로 흥흥했던 민심은 전승을 보고 받고야 진정된다’라는 대목을 덧붙인다. 이 대목은 최영이 당시 조정이나 백성들에게 가장 용맹한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고 하겠다. 가장 용맹한 장군이었던 그가 패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 민심은 흥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사관(史官)들이 최영장군에 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던 태도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여겨진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태조 이성계의 기질을 최영장군의 기질과 비교하여 서술한 부분이 보인다.

고려의 말기에 관(官)에서 군사를 등록시키지 아니하고 여러 장수들이 각기 점모(占募)하여 군사를 삼으니, 이를 패기(牌記)라 명칭하였다. 대장(大將) 중에 최영(崔瑩) · 변안열(邊安烈) · 지용수(池龍壽) · 우인열(禹仁烈) 등은 막료(幕僚)와 사졸(士卒)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욱설로 꾸

11) 『高麗史』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짓어 못하는 말이 없었고, 혹은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까지 있게 되니, 휘하의 군사가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조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평상시에는 항상 눈을 감고 앉았는데, 바라보기에는 위엄이 있으나 사람을 접견할 적에는 혼연(渾然)히 한 덩어리의 화기(和氣)뿐인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하였다. 그가 여러 장수들 중에서도 홀로 휘하의 사람들은 예절로써 대접했으며 평생에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들과 휘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소속되기를 원하였다.¹²⁾(밑줄은 필자.)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다. 최영장군은 휘하의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매질을 가하여 죽는 사람이 있어 원망하는 부하가 많았다고 하고 있다. 반면 태조의 경우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어 위엄이 있으나 사람들을 접견할 때에는 화기를 드러내어 부하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사랑했다고 하였으며 부하들을 예로써 대하고 꾸짖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 서술에서 최영장군과 태조 이성계는 기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최영장군		태조 이성계
군사를 대하는 태도1	말을 함부로 함	↔	말수가 적음
군사를 대하는 태도2	매질을 함	↔	예절로써 대함
기질	포악함		온화함

최영장군과 태조 이성계는 기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최영장군은 포악한 반면 태조 이성계는 온화한 인물이다. 기사는 최영과 이성계의 상반되는 기질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다. 최영장군의 실제 성격이 포악했으므로 이

12)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一卷 叢書 一輯 九面.

러한 기록을 남겼다고 해도 태조 이성계와 서로 다른 기질을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기록이 정말로 사실에 기인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고려사』 절요의 기록에서는 최영의 인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위의 기록을 통해서도 최영의 인간다운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어 보인다. 다음의 기록 또한 앞의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2월 태조가 최영과 더불어 정방(政房)에 앉아, 최영이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이 썼던 사람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와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시일이 오래 되었으므로, 무릇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 그들의 천거한 사람이니, 지금은 다만 재주의 현부(賢否)만을 물을 것이지, 그들의 이미 지나간 일까지 어찌 허물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최영은 듣지 아니하였다.¹³⁾

최영이 전 원주 목사(原州牧使) 서신(徐信)이 곧 이성림(李成林)의 동서(同壻)인 관계로써 함께 참형(斬刑)을 행하고자 하니, 태조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죄인과 괴수가 이미 멸족(滅族)되고 흉악한 무리도 이미 참형(斬刑)을 당했으니, 지금부터 마땅히 형살(刑殺)을 중지하고 덕음(德音)을 펴야 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최영이 또한 듣지 아니하였다.¹⁴⁾

이 기록 또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서술로 보인다. 태조 이성계는 최영에게 참형을 그만두고 덕음을 펴야한다고 간한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태조 이성계의 간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행한다. 두 인물이 등장하는 기사에서는 대부분 최영장군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를 본 태조 이성계는 최영장군의 어리석은 판단을 저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충언하는

13)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一卷 叢書 一輯 十一面.

14) 『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一卷 叢書 一輯 十一面.

모습을 보인다. 또한 최영장군이 태조 이성계의 충언을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태조 이성계의 인물됨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생각된다.

이 밖의 많은 기록에서 태조 이성계는 최영장군과 비교되어 온화하고 사려 깊으며 현명한 인물로 평가된다. 반면 최영장군은 충성스러운 명장이라는 면모와 잔혹하고 어리석은 장군이었다는 이중적 평가가 가해진다. 물론 잔혹하고 어리석은 장군의 면모가 더 부각되었다. 이는 『고려사』 열전이나 『조선왕조실록』이 최영장군에 대한 객관적 인물 서술보다는 태조를 위시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이 기록은 역사 기술의 담당자인 지배계층에 의해 기술된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기술의 담당층인 지배계층은 최영장군의 부정적 면모에 대해서는 선택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각시키려고 했으며, 긍정적 면모에 대해서는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숨기려고 했다고 보인다. 즉, 최영장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지배계층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다분히 드러난 자료라고 하겠다.

2. 민간전승

역사적 기록은 최영장군에 대한 긍정·부정의 이중적 시각이 모두 드러났다. 하지만 최영장군이 가진 부정적 면모에 대해서는 선택의 논리를 적용하여 부각시켰으며, 긍정적 면모에 대해서는 배제의 논리를 적용하여 가리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지배계층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이는 지배계층이 역사서의 향유집단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이라는 특성상 추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인다. 반면 민간전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민간전승에서 전하는 최영장군은 역사적 기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민간전승에서도 역사적 기록에서처럼 최영장군이 명성이 높았다는 것과 용맹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전승된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에서 보이는 최영장군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태도, 잔인함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간전승은 크게 두 양상으로 나뉜다. 하나는 인물 전설적 측면이 강하고, 다른 하나는 신화적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다음의 전승을 살펴본다.

최영이 어릴 때 그 부친이 항상 “금 보기를 흠같이 하라.”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남의 것을 조금도 취함이 없었다. 재상들이 모여 바둑을 두면 모두 좋은 음식으로 점심을 대접하나, 최영 집은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저녁때가 다 되어 채소 반찬에 밥을 대접했는데, 모두 시장해 맛있게 먹었다. 죽을 때 “내가 만약 탐욕의 마음이 있었으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고양 지역에 있는 그의 무덤은 풀이 안 나 홍분(紅墳)이라 한다.¹⁵⁾

이 전승은 인물 전설적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 자료라고 하겠다. 강직하고 청렴결백한 성격의 최영장군, 몸소 효를 실천했던 최영장군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아버지가 평소 하신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실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그의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항상 검소한 삶을 실천했으며 죽음을 앞두고는 자신의 청렴결백함을 주장하고 죽은 후 세상 사람들에게 홍분을 통해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과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의 적분(赤墳)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최영장군의 청렴결백함을 믿고 그를 존경했으며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 기록의 최영장군과는

15)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2,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p.145.(재인용)(崔鐵城營 少時其父常戒之曰……(『慵齋叢話』 55번.))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는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 천상의 선녀를 비(妃)로 두기까지 한다.

조선 시대에 영도에는 나라에서 경영하는 국마장이 있었다. 그런데 영도에서 말을 실어갈 때에 서쪽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말이 병들어 죽어 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러던 차에 한 선녀가 노복 두 사람을 데리고 절영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때, 정발이라는 무관이 부산진 첩사로 새로 부임해 왔다. 그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을 듣고 군마들이 병들어 죽는 이유가 선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정발의 꿈에 한 선녀가 나타났다. 그 선녀는 자신은 천상에서 쫓겨나 탐라국 여왕이 되었다가 최영 장군이 탐라를 점령할 때 그의 첩이 되었는데, 최영 장군이 탐라를 떠난 뒤 신돈의 모함으로 절영도에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영도에 왔지만 끝내 최영을 만나지 못하고 한 많은 귀신이 되었으니 자신을 위해 사당을 짓고 혼을 위로해 달라고 했다. 정발은 자신이 꿈 꿈 이야기로 조정에 아뢰었고, 조정에서 동래 부사 송상현에게 명하여 산제당과 아씨당을 짓고 해마다 봄·가을에 제를 지내게 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군마가 폐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¹⁶⁾

이 전승에서 최영장군은 탐라를 정벌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¹⁷⁾으로 묘사된다. 이 자료는 선녀가 당신이 되는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신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자료에서 최영장군은 천상에서 쫓겨나 탐라국의 여왕이 된 선녀를 첩으로 삼기까지 한 인물이다. 천상의 선녀

16) 부산역사문화대전 <봉래산 산제당과 아씨당>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

17) 공민왕 23년(1374) 갑인년 8월 신유일, 최영(崔瑩)이 각 부대를 이끌고 탐라로 가서 격전을 벌여 적을 대파한 후 적과 세 명의 목을 베어 개경으로 보내니 드디어 탐라가 평정되었다.([高麗史] 卷四十四, 世家 四十四 恭愍王 七.)는 기록을 통해 실제 최영 장군이 탐라로 가 그곳을 평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 첩은 최영장군을 보지 못해 원한에 사무쳐 죽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 서쪽 국마장으로 끌려가는 말을 모두 죽게 만들어 버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발이 사당을 지어 혼을 위로해줌으로써 원한을 풀게 된다.

결국 이 전승은 원혼이 두려운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영도가 조선시대 부산진이 주둔해 있었던 곳이었다는 것과 무관인 정관에 의해 선녀의 원혼을 풀 수 있었다는 것, 최영장군이 신돈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는 것¹⁸⁾, 신돈의 모함으로 천상의 선녀와 최영장군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 선녀가 원한에 맺혀 죽음을 맞았다는 것, 원한으로 인해 조선의 군대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 원혼을 풀기 위해 해마다 봄·가을에 정성스럽게 제를 지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설화는 최영장군의 죽음과 천상 선녀의 죽음이 하나의 주제로 맞닿아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최영장군, 천상의 선녀 모두 모함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죽음은 원한이 맺힌 죽음이었던 사실이다. 그렇기라고 하겠다. 결국 전승을 유포시키거나 전승을 이어간 사람 즉, 향유집단인 피지배층은 천상의 선녀를 통해 최영장군의 억울한 죽음을 드러내고

18) 14년(1365), 왜적이 교동(喬桐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강화도(江華島)로 침구해 오자, 최영이 동·서강 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강(東江)을 지켰다. 과거 최영이 밀직(密直) 김란(金蘭)이 딸을 신돈(辛旽)에게 바친 것을 꾸짖은 일이 있어 신돈이 최영을 미워했다. 마침 이때 최영이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에 사냥간 일을 꼬투리 삼아 신돈이 왕에게 참소하자 왕이 이순(李璠)을 보내 질책했다. …(중략)… 신돈이 다시, 최영과 이구수(李龜壽) 등이 환관들과 결탁해 임금과 신하를 이간시키고 있다고 무고하자 왕이 신돈의 일당인 이득림(李得林)¹²⁾을 보내어 국문하게 했다. 최영이 거짓으로 자복하고는 즉시 처형해 달라고 말하자 3품 이상의 작위를 삭탈하고 그의 전민(田民)을 몰수한 후 유배보냈다. (『高麗史』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는 기록을 통해 신돈에 의해 최영이 유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전승이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영장군이 원한을 풀지 않는다면 조선이 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최영장군의 죽음을 딸이 조장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최영장군이 한국의 장군을 불러 동침하고는 허리를 부러뜨려 죽이는 중국의 여장군에게 불러갔다. 가면서 잉태 중인 부인에게 아들을 낳으면 살리고 딸을 낳으면 죽이라고 부탁을 했다. 중국에 들어간 최영장군은 허리에 철판을 대고 들어가 죽음을 모면하고 여장군의 목을 쳤다. 그때 여장군의 목에서 새가 나와 한국으로 날아갔다. 한국에서는 부인이 딸을 낳았다.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사위를 얻었는데 최영장군은 사위와 목베기 시합을 하게 되었다. 목을 베었다 붙였다 하는 최영장군이기에 쉽게 이길 줄 알았다. 딸이 아버지의 목에 재를 뿌려 죽게 되었다. 최영장군은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고 서서 썩어서 무당들을 불러 빌었다. 그러자 최영장군이 쓰러지면서 ‘덕물’했다. 이 일 이후 덕물산 무당들이 최영장군을 모시게 되었다.¹⁹⁾

이 자료는 최영장군이 신이 되는 내력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신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최영장군은 허리를 부러뜨려 죽이는 중국의 여장군을 기지를 발휘하여 죽이는 용맹함을 보인다. 그 때 여장군의 정기(精氣)가 고국으로 날아갔다. 이를 미리 눈치 챈 최영장군은 중국의 여장군의 목을 베러 가기 전 아내에게 딸을 낳으면 죽이라고 일러주는데 이는 일종의 금기이다. 하지만 아내는 그 금기를 어기고 딸을 키우게 된다. 최영장군은 목을 베었다 붙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가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 전승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아버지를 죽인 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한국구전설화집』 고양·파주편, 민속원, 2005, pp.324-326.

하지만 이면적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 여장군의 원한이 곧 태어날 최영장군의 딸에게 전이된다. 그렇다면 딸은 자신을 죽인 최영장군에 대한 원한이 사무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최영장군은 미리 사실을 알아 아내에게 딸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으나 아내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최영장군은 고국으로 돌아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키운다. 결국 딸에 의해 죽게 된다. 이는 최영장군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²⁰⁾고 생각된다.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이 피지배계층임을 감안할 때, 최영장군 전승의 주체자인 그들의 의식이 이 설화에 다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최영장군은 가장 가까웠던 휘하의 장군인 태조 이성계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전승에서 딸은 태조 이성계를 비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최영장군이 불가피하게 요동정벌을 감행하려고 하자 태조 이성계는 이를 만류한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태조 이성계의 만류를 저버리고 요동정벌을 감행한다.²¹⁾ 이때 최영장군이 태조 이성계에 의해 자신이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예견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승에서는 그가

20) 설화는 최영의 신이한 능력과 억울한 최후를 상징하고 있다.(이정란, 『역사의 기로에 선 영웅, 최영崔瑩』, 『내일을 여는 역사』 14,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p.194.)는 논의는 좋은 참조가 된다. 최영장군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이 신임한 부하를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설화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하겠다.

21) 4월, 봉주(鳳州)에 머물렀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과인(寡人)이 요동을 공격하고자 하니 경(卿) 등은 마땅히 힘을 다하라.” 하니, 태조가 아뢰기를, “지금에 출사(出師)하는 일은 네 가지의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에 거역하는 것이 한 가지 옳지 못함이요,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 두 가지 옳지 못함이요,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니 세 가지 옳지 못함이요,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弓弩)은 아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疫病)을 앓을 것이니 네 가지 옳지 못함입니다.” 하니, 우왕이 자못 옳게 여겼다. …(중략)…우왕은 듣지 아니하였다.(『朝鮮王朝實錄』太祖實錄 一卷 叢書 一輯 十一面.)는 기록에서 태조 이성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장군이 요동정벌을 감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알면서도 딸을 죽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전승을 유포하거나 전승을 이어간 사람들은 이 전승을 통해 최영장군의 죽음과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²²⁾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투영시켰다고 생각된다.

민간전승은 역사적 기록과는 차이를 보였다. 역사적 기록에서는 최영장군을 이중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충성심은 높으나 포악하고 융통성이 없는 인물로 보았다. 반면 민간전승에서의 최영장군은 앞일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순응하였다. 탁월한 능력으로 탐라를 정벌하고 중국 여장군의 목을 베기도 했으며, 천상의 선녀를 비로 삼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최영장군에 대한 민간전승은 인물전설적 성격과 신화적 성격 등의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은 최영장군의 전승에서 최영장군의 궁적적 면모와 그에 대한 안타까움 등은 선택의 논리를 적용하여 부각하려고 했으며, 부정적 면모에 대해서는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전승을 통해 최영장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그를 억울하게 죽인 지배계층에 대한 경고를 드러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최영장군은 피지배계층인 민중²³⁾ 혹은 민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22) 최영장군의 죽음은 백전백승 장군의 대패·완전패로서의 의미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의미, 고려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의 도덕성과 용감성은 나라를 우선하였으나 결국 고려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고 원한 큰 죽음이라 여겨진다.(최길성, 위의 논문, 1989, pp.45-46.)

23) '민중'이란 '민의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민중은 소수의 특권층과 구별되는 다수의 예사 사람을 한꺼번에 지칭하면서 그 주체적 성향과 집단적 행동을 부각시키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사회집단으로서의 민중에는 원래 '농'을 위시해서 '공상'이 포함되며, '사'도 그 처지에 따라서는 민중의 일원일 수 있다.(조동일, 『韓國 說話와 民衆意識』, 정음사, 1985, pp.265-302.)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보기로 한다.

Ⅲ. 최영장군과 향유집단과의 관계

역사적 기록은 기록의 향유집단인 지배계층에 의해 특정시기 확립되어 전해진다. 때문에 기록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민간전승은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어 변화를 거듭한다. 또한 현재까지도 전승을 지속하고 있다.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이 이처럼 최영장군 전승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왜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이 최영장군을 전승물로 삼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영장군과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 사이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최영장군을 들어 전승물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영장군 이외에도 많은 장군들이 있다. 하지만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은 많은 장군들 중에서도 최영장군을 택해 전승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유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하겠다. 최영장군과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과의 관계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과 민간전승에서 나타나 있는 최영장군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역사적 사실을 통한 확인

역사적 기록을 통해 최영장군과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하겠다. 최영장군은 고려말의 무신으로

다양한 전투에 나가 승리를 거둔 총장이라고 여겨진다. 고려말은 왜구의 침입과 원·명 교체기의 중국 상황에 의해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²⁴⁾ 혼란한 시기였으므로 피지배계층 또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피지배계층은 직접 왜구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들은 전적으로 나라가 왜구를 퇴치해 주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최영이라는 장군은 왜구가 출몰하는 장소로 가 왜구를 격퇴하였는데 이 때 그가 왜구를 격퇴하러 갔던 지역 사람들은 최영장군으로 인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 준 그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다음은 최영장군이 다양한 지역에서 왜구를 격퇴했던 기록들이다.

공민왕 6년(1357), 서해(西海)·평양(平壤)·니성(泥城)·강계(江界)의 체복사(體覆使)로 나갔다. 이듬해 왜적의 병선 4백여 척이 오차포(吾叉浦)⁵⁾를 침구하자, 최영이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그 이듬해 서북면 병마사(兵馬使)로 있으면서 흥건적이 서경(西京)으로 침입하자, 여러 장수들과 함께 생양역(生陽驛 : 지금의 평양특별시 중화군)·철화현(鐵和縣 : 지금의 황해북도 황주군 삼진)·서경(西京)·함종현(咸從縣 : 지금의 평안남도 온천군 함종) 일대에서 싸워 크게 전공을 세웠다. 또 그 이듬해에는 평양윤(平壤尹) 겸 서북면 순문사(西北面巡問使)가 되었는데 당시 전쟁의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진제장(賑濟場)⁶⁾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양식과 종자를 지급해 농사를 장려하고 전사자의 유골을 매장해 주었다. 이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 전임되었다.²⁵⁾

24) 고려 중엽 이후 남방 해양세력의 침입이 잦아 민의 원성이 높았으며, 특히 고려말엽에는 그 폐해가 극에 달했다.(이창언,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독제(蠹制)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23, 실천민속학회, 2014, p.249.)는 논의를 통해 고려말 왜구침략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5)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공민왕 14년(1365), 왜적이 교동(喬桐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강화도(江華島)로 침구해 오자, 최영이 동·서강 도지휘사(東西江都指揮使)가 되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강(東江)을 지켰다. 26)

공민왕 23년(1374) 8월, 군대가 나주(羅州)에 당도하자 최영은 영산(榮山)에서 열병한 후 장수들과 서로 맹약했다.…(중략)…제주도(濟州道)에 도착하자 최영은 장수들을 부대별로 편성해 네 방향에서 나누어 공격하게 했다. …(중략)…최영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자 적들이 패주했다. 추격해 적도를 사로잡은 후 잔당을 찾아내어 모두 죽이니 죽은 적의 시체가 줄을 지었다.27)

우왕 원년(1375) 왜적이 연산현(連山縣)의 개태사28)를 침구해 원수(元帥) 박인계(朴仁桂)가 전사하자,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이 출정을 자청했다. …(중략)…두세 차례 간청한 끝에 우왕이 허락을 내리자 최영은 즉시 출정했다.…(중략)…최영이 더욱 역전해 마침내 적들을 대파하니 침입한 적은 거의 죽거나 사로잡혔다.29)

최영장군의 왜구 격파지는 지금의 서울,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제주까지 다양하다. 그는 공민왕과 우왕 때 무신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곳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역사적 기록에서는 최영 당대 왜구 침략의 심각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보인다. 이는 당대 피지배계층

26)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27)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28) 태조 23년(940) 왕건(王建)이 후삼국통일 직후 후백제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연산현(連山縣 :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창건한 화엄종(華嚴宗) 사원으로, 태조의 진영(眞影)이 봉안된 왕실 진전사원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2011&categoryId=49632&cid=49632>)

29)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인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곤궁하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들은 왜구의 침략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조정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다. 나라의 임금인 우왕은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궁궐 밖으로 나가 노닐기를 즐겨하였다는 기록들이 당시 조정의 부패상을 보여준다.

우왕 10년(1384) 최영은 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가 되었다. …(중략)…수창궁이 완성되어 최영 등이 하례를 올리자, 우왕이 환관 이광(李匡) 보내어, “이리 큰 궁궐을 다섯 해 걸려 완공했으니, 무엇으로 경들에게 보답할꼬?”라고 고마워했다. 이에 최영이 이렇게 간언했다. “지금 왜구들이 나라를 잠식해 오고 토지 제도는 날로 문란해져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하니 언제 나라를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지 않고 소인배를 가까이 해 절제 없이 사냥놀이를 일삼으시니, 저희들은 장차 어디를 우리러보며 신하의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이광이 들어가서 그대로 보고하자. 우왕이 부끄러워하며, “삼가 가르침을 들겠노라.” 하고, 다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使)로 임명했다.³⁰⁾

위의 기록은 최영장군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왕에게 알리어 왕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 부분이다. 우왕은 왜구의 침략과 토지 제도의 문란으로 민중들의 삶이 곤궁해져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냥놀이만을 일삼고 있었다. 이때 최영장군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왕에게 간언한다.³¹⁾

30)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31) 소가 올라가니, 왕이 크게 노하여 반도 보지 않고 갑자기 이를 불살라 버리라고 명하고, 정추 등을 불러서 면대하여 꾸짖었다. 이때 신돈이 왕과 호상에 마주 대하여 앉아 있으므로, 존오가 신돈을 쏘아보고 꾸짖기를, “늙은 중이 어찌 이처럼 무례할 수 있느냐.” 하니, 신돈이 저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놀라 호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왕이 더욱 노하여 정추 등을 순군옥에 가두고, 찬성사 이춘부(李春富), 밀직부사 김란(金蘭), 첨

당시 우왕 곁에는 좌·대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왕에게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주기는커녕 우왕이 사냥놀이를 즐기도록 방치한다. 하지만 최영장군은 달랐다. 우왕에게 간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영장군의 강직함과 민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최영장군이 민중들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몇 보이는 기사들이다.

공민왕 9년(1360) 그 이듬에는 평양윤(平壤尹) 겸 서북면 순문사(西北面巡問使)가 되었는데 당시 전쟁의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진제장(賑濟場)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양식과 종자를 지급해 농사를 장려하고 전사자의 유골을 매장해 주었다³²⁾

우왕 8년(1382) 경상도(慶尙道) · 강릉도(江陵道) · 전라도(全羅道)의 세도에서는 왜구(倭寇) 때문에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많이 굶어죽었다. 최영이 세 도에 명령을 내려 시여장(施興場)을 설치해 자비롭고 선량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한 후 관청의 쌀로 미음과 죽을 쑤어 진흙했으며 보리가 익은 뒤에야 중지했다.³³⁾

위의 기사를 통해 최영장군이 피지배계층인 민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영장군은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민중

서밀직 이색(李穡), 동지밀직 김달상(金達祥)에게 이를 명하여 국문하게 하고, 측근의 신하에게 말하기를, “나는 존오의 성난 눈이 두렵다.” 하였다. (『高麗史節要』 卷二十八 恭愍王 三 丙午十五年.)는 기록을 통해서도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영장군의 간언은 최영장군의 강직함을 드러내는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32)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33) 『高麗史』 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들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 민중들은 최영장군과 접촉하면서 그의 사람됨을 알고 그 사람됨을 존경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먹는 것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영장군은 민중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므로 그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최영장군은 서울, 경기, 강원, 전라, 경상,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투를 벌였으며,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다양한 전투를 벌였던 지역의 사람들은 최영장군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그는 왜구의 침입으로 곤궁한 상황에 놓였던 민중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인식될 것이다. 왜구의 침입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민중들은 왜구가 출몰할 때마다 왜구의 침입을 방비해주지 못한 조정에 대한 불만들이 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최영장군은 그들 가까이와 그들의 안정을 보장해주었으니 민중들에게 있어 최영장군에 대한 존경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최영장군과 왜구의 출몰지역의 민중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을 두고 최영장군과 지역민은 가장 가깝게 밀착되어 있다고 하겠다.

2. 전승자료를 통한 확인

역사적 기록을 통해 최영장군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 최영장군이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왜구가 침입한 지역의 사람들인 피지배계층은 항상 왜구의 침입에 노출된 삶을 살았다. 왜구가 출몰할 때마다 그들은 삶이 곤궁해졌을 것이며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을

것이다. 힘든 생활로 인한 고통은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원망이 형성되는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영장군은 지배계층임에도 피지배계층의 생존을 위해 힘쓴 인물이다. 그런데 피지배계층의 생존을 위해 힘쓰던 최영장군이 이성계에 의해 제거 당한다. 이때 피지배계층은 분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그들의 ‘한(恨)’이 되었을 것이다. 최영장군 전승은 피지배계층이 가진 ‘한(恨)’을 표출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식한 최영장군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지배층인 향유집단의 ‘한(恨)’이 실재로 최영장군 전승의 원동력이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미조진항을 지키던 첨사(鎡3품)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나이가 많은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최영장군의 영정과 같이 바닷가에 있으니 찾아서 잘 모셔 놓으라.”고 말했다. 첨사는 꿈에서 깨어나 수문장인 봉장군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인이 말한 것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봉장군은 급히 바닷가에 나가 나무로 만든 궤짝을 발견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최영장군의 영정과 같이 들어 있었다. 첨사는 이것을 짚으로 싸서 모셔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자 영정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현재의 무민사 자리에 영정이 내려앉았다. 첨사는 이곳에 사당을 짓고 이름을 ‘무민사’라고 불렀다. 무민사에서는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제사를 지내고 있다.³⁴⁾

미조항³⁵⁾은 남해에 있는 것으로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다. 이 지역

34)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최영장군당굿 연구』, 민속원, 2008, p.27.

35) 전 광양 현감(光陽縣監) 강희려(姜希呂)가 상서(上書)하기를, “남해도(南海島)의 남쪽, 미조항(彌助項)·장항(獐項)·동모포(冬毛浦) 등과 같은 곳은 병선(兵船)을 정박(碇泊)시켜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방어의 시설을 하지 않아서 왜변(倭變)을 당하여 막을 때에는 염려되오니, …(중략)… 소신은 생각하기를, 적량에 원래부터 정립한 선군을 부근의 각 양에 나누어 읍기고, 관내의 곤남(昆南)과 하동(河東)·진성

침사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최영장군의 영정과 칼을 잘 모시라고 한다. 이튿날 침사는 그것을 찾아 깊은 모서 놓았는데 불이 나자 영정이 하늘로 날아올라 지금의 무민사가 있는 장소에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이후 그곳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두 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고 있기에 최영장군은 그 지역 사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최영장군은 1380년 해수도통사가 되어 삼남 지방을 순찰하면서 왜구 침입을 막기도 했다. 최영장군이 남해군 평산포 수군 진영을 순시한 뒤 미조항에 들러 수군들을 격려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³⁶⁾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최영장군과 미조항은 실제로도 관련성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영장군은 이곳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 준 인물이므로 지역민들은 최영장군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추자도에서 전해지는 최영장군 관련 설화이다.

고려 공민왕 23년 8월 耽羅에서 元의 牧胡 · 石迭里 등이 난을 일으키며 三道都統使인 장군으로 하여금 이를 진압케 하였는데 원정 도중 심한 풍랑으로 이곳 검산곶(黔山串)에서 바람자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민들에게 어망편법을 가르쳐 생활에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러한 장군의 위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³⁷⁾

(珍城)의 사람을 미조항에 입번시킨다면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편익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조항에 새로 정착하는 선군이 박도(撲島)와 사랑(蛇梁)과 마주보며 수자리하여 방어한다면 왜변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려 정부와 여러 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朝鮮王朝實錄』世宗 十四年 壬子(1432) 四月 十六日 甲辰.) 는 조선 전기 세종조의 기록이다. 세종조에도 남해 미조항에 여전히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였으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6)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위의 책, 2008, p.27.

37) 韓相福·全京秀, 『韓國의 落島民俗誌』, 집문당, pp.421-422.

이 전승을 보면 최영장군은 왜구의 침입을 방지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어망편법까지 알려주어 어민들의 생활에 변혁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전승을 통해 볼 때 최영장군은 그곳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편안한 삶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인물이라고 하겠다. 최영장군이 지역민들에게 해준 일들을 통해 최영장군과 지역민들의 결속은 더욱 더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사당을 지어 찾고 있으니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에서 최영장군은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승기록을 통해 본 결과 각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최영장군이 과거 왜구를 격퇴한 곳들이다. 그곳의 사람들은 항상 왜구의 침입에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온전할 수 없었으며, 항상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무능한 지배계층에 대한 원망을 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 세종조의 기록이 아니더라도 동·남해안, 서해안 인근의 사람들은 항상 왜구 피해 때문에 고통 받아왔었다. 피지배계층인 향유집단은 고단한 삶과 지배계층에 대한 원망에서 배태된 ‘한(恨)’이 응어리져 있었을 것이다. 그때 고통을 덜어주었던 고마운 존재인 최영장군은 역성혁명으로 지배계층이 된 이성계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최영장군은 ‘한(恨)’ 맺힌 죽음을 맞이했다. 피지배계층은 그들이 존경하던 최영장군의 ‘한(恨)’을 고통 속에서 생성된 그들의 ‘한(恨)’과 동일시했다고 생각된다. 뒷장의 논의에서 진행되겠지만 최영장군과 지역민의 동일시현상은 고통 받는 피지배계층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준 최영장군 사이의 친밀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승을 통해 피지배계층인 향유집단은 최영장군에 대한 고마움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한(恨)’의 동일시를 통해 지배계층에 대한 원망의 외침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동일시 현상과 그 특징

지금까지 역사적 기록과 민간전승에서 나타나는 최영장군의 면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인물됨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있었지만 두 기록에서 모두 최영장군은 뛰어난 장군이었으며, 민들을 사랑하고 스스로 검소하고 강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영장군이 전투를 벌인 곳의 지역민들은 최영장군을 더욱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유는 최영장군이 그들 곁에서 어려운 삶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왜구 침입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최영장군은 어김없이 나타나 왜구를 격퇴해주었으므로 그들은 최영장군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 이 장에서는 민간전승의 하나인 최영장군 전승이 향유집단에 의해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동일시 현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향유집단이 왜 최영장군을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밝힌다면 최영장군 전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 ‘한(恨)’의 동일시

최영장군 전승의 향유집단은 최영장군의 ‘한(恨)’과 자신들의 ‘한(恨)’을 동일시했다고 판단된다.³⁸⁾ 최영장군 전승이 전해지는 곳들은 과거 왜구

38) 백성이 스스로 임금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믿어 왔던 왕조시대에 그들이 역성혁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최영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달래는 무속신앙에서 먹는 고기를 성계육이라고 하여 이성계에 대한 복수심을 씌는 것은 민주의 한이 이씨왕조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을 의미한다.(최길성, 위의 논문, 1989, p.43.)

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다. 때문에 최영장군의 죽음은 그들에게 희망을 갖 아기는 행위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조정에 직접적인 항거를 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만의 방법으로 불만을 토로³⁹⁾하고 최영장군의 죽음을 애도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다음의 기록을 통해 최영장군 전승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창왕이 이 상소를 받아들여 마침내 최영을 처형하게 하니 그때 나이가 일흔셋이었다. 처형을 받으면서도 말씨나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죽는 날에 개경 사람들이 모두 철시했으며, 멀고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길거리의 아이들과 시골의 여인네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자, 길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으며, 도당(都堂)에서는 쌀·콩·베·종이를 부의로 보냈다.⁴⁰⁾(밑줄은 필자)

기록을 통해 최영장군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개경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눈물 흘렸다고 하는 대목은 최영장군이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한 존재였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⁴¹⁾ 존경하는 인물의

39) 조선은 건국 후 과전법을 통해 사대부의 지지를 얻고 농민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지만 개경의 인심은 달랐다. 개경 사람들은 태조에 대한 반발심이 강해 태조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실시한 과거에 한 명도 응시하지 않을 정도였다.(박광일·최태성,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조선』, MBC C&I, 2016, p.35.)라는 사실은 당시 조선 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의 한 양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신분은 지배계층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피지배계층에서도 반발이 심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40) 『高麗史』列傳, 卷一百十三, 列傳 二十六.

41) 고려 백성이 가장 친근하게 느꼈던 정치인은 아마도 외적을 격퇴한 장군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백성들은 지배층의 가혹한 수탈 대상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왜구나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다. 이를 해결해주는 명장 최영은 백성들에 최고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이성계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후 이성계에 대한 반감은 지배계층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다. 또 다른 최영장군의 전승 또한 이러한 맥락의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즈음 우리 나라 남쪽에는 적변(賊變)이 많았습니다. 8월 15일에는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의 민선(民船)이 공진암(貢進巖)을 지나다가 적선(敵船) 2척의 공격을 받아 한 사람은 부상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또 27일에는 적선 2척이 경상도 남해현(南海縣) 미조항(彌造項)과 고성현(固城縣)의 가도(柯島)·주도(酒島)·호곶이[狐串]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선(民船)을 만나면 쫓아다녔습니다. 9월 초2일에는 적선 3척이 전라도 돌산도(突山島) 대질포(大叱浦)에 와서 양민 3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이날에는 또 적선 4척 혹은 3척 혹은 2척이 경상도의 소치도(所致島)와 황미도(荒彌島) 사이에 번갈아 나타났는데, 이들을 체포하기는 조룡 속의 새를 잡는 것과 같이 쉽지만 국가에서 도주(島主)를 성심껏 대접함을 변장(邊將)이 알기 때문에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변방 백성들도 국가에서 죽하를 후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혹 귀도민(貴島民)이 도독질하는 일이 있어도 양강음하지 않습니다.⁴²⁾

기록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왜구 침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피지배계층인 지역민들은 곤궁한 현실에서 더욱더 절박하게 최영장군을 그리워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지배계층인 지역민들에게 최영장군은 희망이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지역민들에게 조선 건국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구의 침입으로

신망을 받는 존재였을 것이다.(이정란, 위의 논문, 2003, p.192.)

42) 『朝鮮王朝實錄』成宗十二年 辛丑(1481)十月 一日 壬寅.

고통 받는 피지배계층인 지역민들은 삶이 더 곤궁해질 때마다 최영장군을 그리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든 지배계층을 향한 ‘한(恨)’이 쌓여갔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장군 전승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되었다고 생각한다. 고통 받는 지역민 즉, 피지배계층은 지배계층에 대한 ‘한(恨)’이 쌓여간다. 최영장군은 지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인물이었다. 최영장군은 피지배계층인 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배계층의 상일 수 있다.⁴³⁾ 핍박받는 피지배계층은 현 지배계층에 의해 쌓인 ‘한(恨)’을 통해 이상적인 지배계층의 상이었던 최영장군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영장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지배계층을 원망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유집단은 최영장군 죽음에 얽혀 있는 ‘한(恨)’과 그들이 지닌 지배계층에 대한 ‘한(恨)’을 동일시했다. 최영과 피지배계층인 향유집단 모두 지배계층에 대한 ‘한(恨)’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통의 분모는 강한 힘⁴⁴⁾을 발휘하여 전승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43) 설화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지배계층의 인물들은 역사현장에서 민중과 친숙했던 인물임과 동시에 설화 전승집단이 이상적인 지배계층이라고 여기는 인물이었다.(임철호, 『설화와 민중』,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p.80-81.)

44) 타인의 고통을 다룬 소설에서는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통성을 보여준다. 또한 고통의 제시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다룬다.(허정, 「타인의 고통과 증상과의 동일시-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예로 하여」, 『코기토』 76, 부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162-163.)라는 논의는 많은 참조가 된다. 최영장군의 죽음도 고통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영장군 전승에서 고통은 ‘한(恨)’으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은 최영장군 전승의 생산자이다. 향유집단은 최영장군 전승을 통해 최영장군과 그들의 ‘한(恨)’을 동일시하고 나아가서는 치유의 차원까지도 전승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이 논의가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2. 자기목소리내기

향유집단이 최영장군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향유집단이 지금도 여전히 최영장군을 그리워하고 존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향유집단이 최영장군 전승을 이어오면서 그들이 지배계층에게 가진 ‘한(恨)’을 토로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한(恨)’을 승화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측면 또한 존재했다고 보인다. 이 장에서는 향유집단의 직접적 ‘한(恨)’의 토로를 ‘자기목소리내기’라고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역사적 기록은 문자로 전승되어 고형의 모습을 간직한다. 때문에 변화가 없는 정제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민간전승은 향유집단에 의해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즉, 변화의 동인이 향유집단 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층은 최영장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민간전승 사이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최영장군 전승 또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지속되어왔다.

민간전승에서는 최영장군을 비범한 능력⁴⁵⁾을 가진 장군, 하늘의 선녀를 비로 삼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최영장군을 이렇게 평가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들에게 억

45) 덕물산을 가기 전에 주어진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강에 빠져 죽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최영장군신의 영향력은 그 뿐만이 아니다. 제물로 바칠 돼지를 몰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돼지가 저절로 혼자서 비탈길을 올라가 장군님이 계시는 신당 앞에 이르러 머리를 들이박고 쓰러질 정도였다. 최영장군사로 가는 중에 ‘긴 동물(뺨)’을 만나기라도 하면 곧바로 되돌아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당이 결국 부정을 타서 화를 당하게 되거나 되돌아오는 뱃길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최영장군당굿보존회, 위의책, 2008, p.23.)는 내용을 통해 향유집단이 최영장군신의 영험함과 위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놀려 있던 자아의 외침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영장군은 서울지역과 남해안 일대에서 신앙화되어 섬겨지고 있다.⁴⁶⁾ 과거 개성⁴⁷⁾에서 섬겨지던 것이 분단으로 인해 서울지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안 일대⁴⁸⁾의 경우 과거 왜구의 끊이지 않는 침략을 받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 사람들은 최영장군으로 인해 한 때나마 왜구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영장군 전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최영장군은 숭앙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민간에서 최영장군을 신앙화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최영장군 뿐만 아니라 다른 장군들 역시 왜구 토벌에 힘썼기 때문이다. 개성에서 시작된 최영장군에 대한 숭배는 비단 그 인물의 청렴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고려사』 열전의 기록에 따르면 최영장군이 이성계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백성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민중은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배층의 이동이 민중에게 신분적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왕조의 변혁과 관계없이 피지배계층인 민중은 지배계층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하지만 민중이 신분적 한계를 가졌다고 해서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에 대한 방증이 바로 최영장군을 신앙화⁴⁹⁾한 것이라 생각된다.

46) 실존 인물이 신격으로 좌정될 수 있는 요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특정 인물을 신앙으로 모시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인물의 공헌과 업적이 이들 지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서종원, 위의 논문, 2009, p.120.)

47) 개성의 덕물산은 영산으로 여겨지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최영장군이 묻힌 적분(赤墳)과 장군의 혼령이 서려 있는 ‘최영장군사’가 있기 때문이다.(최영장군당보존회, 위의 책, 2008, p.20)는 기록을 통해 개성에서 최영장군이 섬겨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던 사실 또한 최영장군이 섬겨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48) 남해안 일대에서는 최영장군이 왜구를 무찌른 공로 때문에 그를 신으로 숭화시켜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이다.(백은영, 위의 논문, 2007, p.117.)

조선의 역성혁명은 아래로 부티의 혁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배계층에서 지배계층으로의 권력 이동이었다. 나라가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최영장군이라는 뛰어난 명장이 사라짐으로써 더욱 궁핍해지고 어려워졌다. 향유집단은 최영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지배집단에 대한 원망으로 ‘한(恨)⁵⁰이 쌓여갔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恨)’과 최영장군의 ‘한(恨)⁵¹을 동일시하여 지배계층에게 ‘자기목소리내기’를 감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긍정적 측면에서 ‘한(恨)’을 승화시킨다. 민간전승에서 보이는 최영장군의 신앙화⁵²가 바로 그 좋은 자료라고 하겠다. 피지배계층인 향유집단의 최영장군 전승은 ‘원망의 증폭 단계 → ‘한(恨)’의 생성 단계 → ‘한(恨)’의 동일시를 통한 자기목소리내기 단계 → ‘한(恨)’의 승화를 통한 긍정적 의미 생산 단계’를 거쳐

49)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인 인물은 죽은 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욱이 아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능력의 발휘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장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택하게 된 것이다.(홍태한, 위의 논문, 1994, p.45.)라는 논의는 향유집단이 최영장군신의 영험함과 위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50) 남해는 늘 왜구로 인하여 불안에 떨었고, 왜구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다. 처음으로 그 원한을 풀어준 이가 최영장군이었다. 그리하여 남해 사람들은 미조면에 시호 ‘무민’을 따서 사당 ‘무민사’를 지어 최영장군에게 은혜 갚기를 한 것이었다.(박진욱, 『역사 속의 유배지 답사기』, 보고싶은책, 1998, p.253.)는 기록을 통해 향유집단이 왜 최영장군 전승을 이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살필 수 있다.

51) 현실에 부딪혀 좌절당한 인물들은 민중의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홍태한, 위의 논문, 1994, p.44.)는 논의는 최영장군과 민중 모두 현실에 좌절을 맛보았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52) 하나의 영웅신이 형성되려면 한 역사적 인물의 영웅적인 생애 외에 사회적 공감의 필요하다. 한 영웅이 뒷날 영웅신이 되기 위해서는 곧 그의 업적이 민중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며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조홍윤, 위의 책, 1985, p.105.)는 최영장군 전승의 지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영장군은 향유집단인 피지배층의 이해와 애착에 기반하여 그들의 자기목소리 내기에 일조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준다.

추동의 원동력을 얻었다. 민중들은 어렵고 막연한 삶에 최영장군을 불러들여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는 피지배계층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지배계층의 강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저항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⁵³⁾했다.

V. 결론

최영장군 전승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향유집단의 의식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최영장군 전승은 역사적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역사적 기록의 향유집단이 지배계층이므로 지배계층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다분히 담긴 자료라고 하겠다. 또한 기록이라는 한계로 인해 전승의 능력을 상실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전승에서 최영장군은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측면이 보였다. 민간전승의 최영장군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으며, 청렴결백하고, 애민(愛民)의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는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이 최영장군과 관련해 긍정적 면모는 선택의 원리를 적용하여 확대 재생산하였으며, 부정적 면모는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간전승에서 최영장군은 비범하지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인물, 신앙의 대상 등으로 크게 두 가지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비범하지만 억울

53) 사람들은 장군을 모시면서 국태민안, 태평성대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기원하고, 장군신이 보우해주기를 바란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도움으로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생각에서 최영장군을 신격화한 것이다.(레티옹옥겸, 위의 논문, 2010, p.39.)

한 죽임을 당한 인물이 부각되는 전승에서 향유집단은 최영장군에 관한 측은함과 그리움, 최영장군을 죽게 만든 지배계층에 대한 ‘한(恨)’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최영장군의 억울함이 깃든 ‘한(恨)’과 지배층을 향한 피지배계층의 응어리진 ‘한(恨)’을 동일시하여 표출하고자 했던 향유집단의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넷째, 최영장군이 신앙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전승에서는 최영장군이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 풍어와 수호의 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최영장군이 죽은 후 그의 ‘한(恨)’이 초월적 힘을 얻어 민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민간전승의 향유집단인 피지배계층이 최영장군을 통해 지배계층에 대한 자기목소리내기를 감행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포부나 열망을 과시하는 측면이 보인다.

다섯째, 최영장군 전승은 ‘원망의 증폭 단계 → ‘한(恨)’의 생성 단계 → ‘한(恨)’의 동일시를 통한 자기목소리내기 단계 → ‘한(恨)’의 승화를 통한 긍정적 의미 생산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피지배계층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들은 지배계층의 강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저항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 논문 및 단행본

- 김병섭, 『고려명장 최영의 역사흔적을 찾아서』, 도서출판 해암, 2007.
- 김영필, 「한국인의 한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哲學研究』 92, 2004, pp.115-136.
- 김인희, 『한국무속사상』, 민속원, 1987.
- 金垓五, 『詩論』, 三知院, 2015.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 레티응옥겸, 「崔瑩將軍 신앙 연구」, 仁荷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0.
- 박광일·최태성,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조선』, MBC C&I, 2016, p.35.
- 박진욱, 『역사 속의 유배지 답사기』, 보고싶은책, 1998.
- 백은영, 「문헌설화의 구비전승에 나타난 고려의 기억-문화적 기억 속의 최영(崔瑩) 장군」, 『한국중세사연구』 23, pp.91-125.
- 서종원, 「실존인물의 성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pp.97-122.
- 손정희·조성훈, 「담론의 억압 속에서 자기 목소리 내기: 헨리 제임스의 『위싱턴 스쿼어』 읽기」, 『영미문화』 13, 한국영미문화학회, pp.161-186.
- 양종승, 『한국의 무속-서울·황해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 , 『최영장군당굿 신가집』, 민속원, 2009.
- 이영의, 「한국인의 대표 감성으로서의 한(恨)의 구조」, 『호남문화연구』 49, 호남학연구원, 2011, pp.149-186.
- 이정란, 「역사의 기로에 선 영웅, 최영(崔瑩)」, 『내일을 여는 역사』 14,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pp.188-204.
- 이창언, 「경상좌수영성 의례의 지속과 변화」, 『실천민속학연구』 23, 실천민속학회, 2014, pp.249-275.
- 임철호, 『설화와 민중』, 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 조동일, 『韓國 說話와 民衆意識』, 정음사, 1985.
- 조홍윤, 『한국의 巫』, 정음사, 1985.
- 최영장군당굿보존회, 『최영장군당굿 연구』, 민속원, 2008.
- 韓相福·全京秀, 『韓國의 落島民俗誌』, 집문당, 1992.
- 허 정, 「타인의 고통과 증상과의 동일시-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예로 하여」, 『코기토』 76, 부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p.160-197.
- 홍태한, 「설화와 민간신앙에서의 실존인물의 성격화 과정」,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Savoring Group with General Choi Yeong through His Transmission

Park, Da-won

This study began by asking the question, "Why does the savoring group set General Choi Yeong as the object of transmission even though he was victimized in a political situation?" General Choi Yeong was one of the greatest commanders at the end of Goryeo. He led his army to victory in many battles, recording superb achievements. He was killed by his subject Lee Seong-gye in a Wihwado Retreat led by Lee, who would later become King Taejo of Joseon. His death was in the same trajectory of collapse as the Goryeo's royal family, in which sense it will be safe to say that his death represents "resentment."

The "resentment" of the common people of Goryeo, who were in the subjugated class, was exacerbated by the foundation of Joseon. The dynastic revolution of Joseon did not derive from the bottom and move upward. It marked a shift of power from one ruling class to another. The life of the people in the subjugated class was not preserved in its full sense after one nation was replaced by another. As a matter of fact, their life became even more destitute and difficult since the great commander Choi Yeong was killed. The hardship continued on after the foundation of Joseon. The frequent invasions of Japanese raiders made life even more harsh. They missed General Choi Yeong, who drove the Japanese raiders out and kept them safe, and enjoyed even more the transmission of the general. That is, the transmission of General Choi Yeong signifies that the people, the savoring group of his transmission, blamed the ruling class for his death, identified their accumulated "resentment" with that of the general, and voiced resentment of the ruling class.

Key Word : General Choi Yeong, resentment, blame, ruling class, subjugated class, identification, Joseon, Lee Seong-gye, Goryeo, Japanese raider, savoring group, transmission

박다원

소속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전자우편 : sky333@ynu.ac.kr

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